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와 보편문법

이 숙*

차 례

1. 들어가기
2. 학습자 오류에 대한 선행연구
3. 언어습득과 보편문법
4. 자료 : 오류 유형
5. 중간언어에 나타난 보편문법
 - 5.1. 조사 사용과 격 개념
 - 5.2. 조사 누락과 원리 적용의 자발성
 - 5.3. 격 대체 오류와 보편문법
6. 시사점 및 남은 문제

1. 들어가기

언어 습득에 대한 관점이 행동발달 심리학에서 인지주의 심리학으로 변화하면서 제2언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관점도 크게 변화하였다. 행동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언어 습득이란 반복된 훈련에 의해 발달되는 능력으로 인식하였다. 제2언어 습득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2언어 학습법은 정확한 발음과 문법적인 문장을 반복적으로

* 목원대학교 교수. slee0941@hotmail.com

훈련하는 것이라 여겼다. 이에 따라 제2언어 학습자의 오류는 잘못 발달된 행동으로서 수정되고 제거되어야 할 요소로 인식되었고, 정확한 언어 행동을 습관화 시킬 수 있는 올바른 훈련만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모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린아이가 경험하는 모어의 양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수준의 모어 능력을 나타낸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듣고 경험했던 문장만을 흉내 내어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 내어 발화하는가 하면, 올바른 문장만을 경험했다 해도 오류 문장을 발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언어습득 과정은 자극과 반응이라는 행동 발달 단계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이에 대해 촘스키(1965)를 위시한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은 생득설만이 언어습득 과정에 나타나는 경험과 지식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은 천부적인 언어 습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유한의 언어 경험을 통해서 언어 규칙을 파악하게 되고, 그 유한의 언어규칙을 활용하여 무한의 언어 표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지주의 심리학적 관점이 제2언어 습득 이론에도 적용되어 학습자가 제2언어를 습득할 때에도 제2언어에 내재된 언어 규칙을 만들어 내는 언어능력을 작용시킨다고 믿는다. 제2언어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목표어에도 없는 오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목표 언어가 완벽하게 발달하지 못한 중간 단계에서 학습자가 습득한 언어규칙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해석한다.(Selinker 1972 참조)

2. 학습자 오류에 대한 선행연구

인지주의 심리학에 의한 제2언어 학습이론에서는 오류란 학습자가 목

표어의 특성을 어떠한 규칙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하면서 학습자 오류에 연구 관심이 높아졌다.

오류 분석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대조분석적 접근법과 중간언어의 특성을 분석하는 접근법을 들 수 있는데, 대조분석적 접근법은 제2언어 학습자의 오류가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에 의한 것으로 보고 두 언어 사이에 나타나는 구조적 유사성과 상이성을 대조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조분석에 의한 난이도 예측과 실제로 학습자가 제2언어 습득 과정에 느끼는 난이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조분석 자료를 제2언어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¹⁾

이에 반해 중간언어 이론은 학습자의 오류를 목표어가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 학습자가 습득한 언어 규칙에 의한 산물로 보기 때문에 학습자가 적용한 문법규칙의 특성을 통해 학습자가 가지는 목표어에 대한 심리적 특성 및 오류의 유형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언어학습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학습자 오류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선행되었다. 오류가 나타나는 문법 범주에 따라 오류 유형을 분류하고, 학습자의 모어 특성과 오류율과의 상관성을 비교 대조하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김유미(2000)에서는 일어권 학습자와 영어권 학습자로 나누어 비교하면서 두 언어권 학습자가 조사 사용에서 나타내는 오류의 유형은 조사의 첨가, 누락, 대치, 변이형 사용 등으로서 오류의 유형이 거의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사 누락의 빈도가 일어권 학습자 보다 영어권 학습자가 많은 이유를 모어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설명했으며, 일어권 학습자가 영어권 학습자보다 조사 오류 유형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영어권 학습자가 조사 사용을 회피하는 책략을 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하였다.

1) Whitman & Jackson(1972)에서는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 사이에 나타나는 대조적 유표성과 학습 난이도가 일치하지 않다는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나은영(2006)에서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중에서 어미와 조사 사용에 나타나는 오류원인을 모어에 없는 문법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진은주(1994)도 조사사용에 나타나는 모어와의 유사성과 차이성이 학습자 오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대조분석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초기 단계에서는 조사 체계가 있는 모어를 가진 학습자들이 조사 사용에 익숙한 양상을 보였으나 오히려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는 조사 체계가 없는 모어를 가진 학습자들이 조사 오류를 덜 만드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들이 오히려 모어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조사 체계가 있는 모어 배경의 학습자나 조사 체계가 없는 모어 배경의 학습자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사 사용 규칙에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2004)이나 김상수, 송향근(2006)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오류분석이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고, 오류의 원인을 학습자의 모국어와 대조 분석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습자가 조사 사용에서 보여주는 중간언어 체계에 어떠한 언어규칙이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중에서 주격과 목적격 조사의 오류에 초점을 맞추어 주격과 목적격의 표지 체계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습득하는 언어 규칙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통사적 지위를 표시하는 문법격 표지라는 점에서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여타의 격조사들과 구분된다. 중국어에도 어휘적 의미를 갖는 격조사의 기능을 하는 형태의 쓰임은 있지만 추상적 개념의 문법격을 표시하는 주격과 목적격 표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어에 없는 격조사 표지 체계에 대해 어떠한 규칙을 습득하고 발달시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언어습득과 보편문법

언어습득은 어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다. 어휘에 대한 지식이란 어휘가 가지는 음성적 특질과 함께, 의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어휘가 문장으로 구성될 때의 통사적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즉 어린이가 모어를 습득할 때 어느 어휘가 사물을 지시하는 말인지 혹은 상태나 사건을 기술하는 말인지 구분하게 되면서 그 어휘를 문장으로 표현할 때 어떠한 통사 위치에 연결시켜야 하는지 아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언어능력이다.

예를 들어 '읽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어휘가 나타내는 사건 유형을 이해하고, 이 사건에 필요한 의미 논항으로 읽는 사람과 읽는 대상이 요구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보편문법에 대한 언어적 능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작주역과 동작의 대상역이 함께 나타날 때 동작주역은 주어 위치에 통합되고 대상역이 목적어 위치에 통합되는 보편문법적 특질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Greenberg(1963)는 어느 언어에나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가 문장 구성 성분으로 나타나는 보편문법적 특질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의미 전달에 사용하는 문법 범주가 어느 언어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서술어를 목적어 앞에 나타나게 하는지 혹은 뒤에 나타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어마다 유형적인 변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적 변이에도 불구하고 서술어의 의미 논항이 차지하는 통사상의 위치에는 다시 보편적 특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²⁾ 예를 들어 동작주역과 대상역이 요구되는 무표적인 서술 구문에서는 어느 언어에서나 동작주역이 주어 위치에 통합되고 대상역이 목적어 위치에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반대의 순서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Baker(1988)는 Uniformity of Theta Assignment Hypothesis(의미역과 통사위치의 일치성)를 통해 각 논항의 통사적 지위가 의미역의 위계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어느 언어에서나 공통된 속성이 나타나고, 언어 개별적 특성에서도 유형적 특질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구사하는 방식이 우연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보편문법을 파악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보편문법적 특질을 파악하는 언어능력이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도 작동되는 것이라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조사사용에서 나타내는 중간언어를 통해 그들이 파악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4. 자료: 오류 유형

본고에서는 국내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유학 온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 과제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조사 표본을 두 그룹에서 추출하였는데 제1그룹은 낮은 중급 단계에 속한 그룹이고, 제2그룹은 높은 중급에서 고급에 속한 그룹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의 대학교에서 한국 관련 학과에서 3학기 이상의 한국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로서 한국에서 첫 번째 학기의 수업을 받은 학생도 있고, 마지막인 두 번째 학기의 수업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 제1그룹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한국에 유학 온 첫 학기인 경우가 많았고, 제2그룹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유학 온 지 6개월 이상이 지나고 두 번째 학기인 경우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간혹 유학 첫 학기부터 제2그룹에 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게 한 학기 동안 5회에 걸쳐 작문 과제가 주어졌는데, 과제의 성격은 교실 수업에서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 학습자 개인의 의견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자신의 경험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에 속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수는 두 그룹에서 모두 15명이었고, 이들이 각각 5회에 걸쳐 제출한 작문의 편수가 75편에 이른다. 그러나 교사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과제인 탓에 제출 전에 주위에 있는 한국어 화자의 도움으로

오류가 수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중간언어로서 유의미한 37편의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³⁾

작문의 길이를 학습자들이 사용한 단어 수로 측정한 결과 낮은 중급 단계의 반에서는 평균 175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중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반에서는 평균 237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술 관계를 포함하는 어절 단위로 측정한 결과는 제1그룹에서는 평균 33개의 어절을 사용했으며, 제2그룹에서는 평균 39개의 어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출현 빈도와 오류 유형에 따른 빈도는 다음과 같다.

<제1 그룹>

자료	전체 어절 수	주격 조사 빈도	주격 조사 누락	주격-목적격 대체	그외 오류	목적격 조사 빈도	목적격 조사 누락	목적격-주격 대체	그외 오류
자료 1	22	7	1		2	6	1		
자료 2	31	16	2	6		17			
자료 3	41	14		2	2	8			
자료 4	26	10		3	1	7		2	
자료 5	31	10	2	1		6	3		
자료 6	42	10	1	2	1	17		5	
자료 7	43	19	3			17	1		
자료 8	24	5				10			
자료 9	46	21				23	1		
자료10	25	10	1			5	2		
자료11	27	6	2		1	8	2		
자료12	26	13				12			
자료13	34	13				14			
자료14	39	19	3			7	1		
자료15	33	12	1		1	13	1		
빈도	490	185 (37.8%)	15 (8%)	14 (7.5%)	8 (4%)	170 (34.7%)	12 (7%)	7 (4%)	

3) 이렇게 제한된 자료를 통해 중간언어의 체계를 일반화 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오류 환경을 주격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사용 환경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고 자료에서 얻어지는 주격조사의 오류 환경은 496건, 목적격조사의 오류 환경은 532건에 달한다.

<제2 그룹>

자료	전체 어절 수	주격 조사 빈도	주격 조사 누락	주격- 목적격 대체	그 외 오류	목적격 조사 빈도	목적격 조사 누락	목적격- 주격 대체	그 외 오류
자료16	54	18			1	39		3	
자료17	46	16				23			
자료18	28	7				20			
자료19	36	7				13			
자료20	27	7	2			13	3		
자료21	37	9				11			2
자료22	53	36		1		22			
자료23	39	16	3			7	1		
자료24	44	17				23		1	
자료25	22	6		1		11		1	
자료26	52	20		2		19	1	3	
자료27	77	24		4	1	29	2	4	2(과잉)
자료28	39	17	1	1	1	8	1		
자료29	55	17	4	4		18	4	2	
자료30	28	18	1		1	6		2	
자료31	36	20	2	1	2	13	1		
자료32	30	5				20			1
자료33	21	7		1	1	13			
자료34	39	14				25			1
자료35	35	12	2		1	14	3		
자료36	17	3				7			1
자료37	31	15			1	8			
빈도	846	311 (36.8%)	15 (1.8%)	15 (1.8%)	9 (2.8%)	362 (42.8%)	16 (1.9%)	16 (1.9%)	7 (0.8%)

제1그룹에서는 주격조사의 사용 빈도율이 37.8%, 목적격조사의 사용 빈도율이 34.7%로 나타나 주격조사의 사용 빈도가 목적격조사의 사용 빈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2그룹에서는 주격조사의 사용 빈도율이 34.7%, 목적격조사의 사용 빈도율이 42.8%로 나타나 목적격조사의 사용 빈도가 주격조사의 사용 빈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목표어의 숙달 단계가 높아지면서 학습자들이 타동사 서술구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사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조사 누락은 제1그룹과 제2그룹에 모두 나타나는 공통된 요소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두 그룹 모두 조사 오용 사례보다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한 비율이 단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 사용 오류 중 조사 누락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1그룹에서는 현저히 높게 나타났지만, 숙달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조사누락 오류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격조사 누락과 목적격조사 누락의 빈도율 사이에는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를 서로 대체하는 현상도 제2그룹보다는 제1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제1그룹에서는 주격조사를 목적격조사로 대체하는 빈도가 목적격조사를 주격조사로 대체하는 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제2그룹에서는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상호 대체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외 오류는 주격이나 목적격 조사가 쓰여야 할 곳에 용법에 맞지 않는 보조사를 사용하는 오류로서 주격조사 대신 특수 의미를 가진 보조사를 쓴 오류가 제1그룹과 제2그룹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제2그룹에서는 목적격조사 대신 부가격 조사를 사용하는 오류도 함께 나타났다.

5. 중간언어에 나타난 보편문법

5.1. 조사 사용과 격개념

중국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조사 체계가 없는 학습자 모어의 간섭에 의한 현상으로 해석하는 대조분석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학습자의 모어에 조사 체계를 갖는 일본인 학습자에게서도 중국인 학습자가 보여주는 오류 유형이 모두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은 조사 사용의 오류를 모어 간섭으로 보는 것은 설명력이 없는 분석임을 나타낸다.

오히려 중국인 학습자들도 일본인 학습자 못지않게 주격과 목적격 조사를 문법적으로 사용한 빈도가 조사 오류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 보편문법에 대한 언어 능력이 작용되어 모어인 중국어와 목표어인 한국어 사이에 나타나는 보편성과 개별성의 원리를 파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중국어에는 서술어가 목적어에 선행되지만 한국어에는 서술어가 목적어 뒤에 오는 차이를 통해 어순에 관한 언어 개별적 특성과 중국어에는 주격과 목적격과 같은 문법적인 격개념이 어순으로 실현되는데 반해 한국어는 형태표지로 실현된다는 원리를 파악한 것이다.

5.2. 조사누락과 원리 적용의 자발성

낮은 숙달 단계에서도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용법을 정확히 인식하는 비율이 조사사용 오류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보편문법적 특징을 파악하는 언어능력이 작동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 누락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는 학습자가 습득한 원리를 적용하는 자발성이 발달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제1그룹보다 제2그룹에서 조사 누락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문법격 표지 원리의 적용에 대한 자발성이 언어 숙달과 함께 발달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사 누락은 학습자가 한국어에서 습득한 보편문법적 원리를 적용하는 데에 자발성이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은 중간 단계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3. 조사 대체 오류와 보편문법

앞선 논의에서 우리는 중국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이 보편문법에 대한 언어능력을 작용시킨다는 점과 한국어 어순 상의

개별적 원리를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학습자들은 서술어의 어휘의미에 따라 어떠한 격 개념이 실현되는지에 대한 보편문법적 특성을 인지하고 그러한 격 개념이 한국어에서 형태표지로 표현되는 원리를 습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습득한 원리를 적용하는 자발성은 발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발달 중간 단계에서 조사 누락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주격을 목적격으로 목적격을 주격으로 사용하는 오류는 격표지 원리 적용의 자발성 발달의 중간단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Baker(1988)는 의미역과 통사지위와의 일치성 가설을 통해 동작주역과 대상역이 나타나는 경우에 의미역 위계가 높은 대상역이 목적어 자리에 통합되고 그보다 의미역 위계가 낮은 동작주역은 서술어에서 더 먼 통사지위인 주어 위치를 차지하는 보편문법적 특질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주격과 목적격의 혼동은 보편문법을 인지하는 언어적 능력에 관한 문제라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먼저 주격을 목적격으로 대체한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 주격조사를 목적격조사로 대체한 오류의 예
- ① 아주 현대적이고 독특한 예술미를(✓가) 더해졌다는 장점을 볼 수 있다.
 - ② 중국 대학에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항상 기숙사 생활의 자유가 없다는 이야 기를(✓가) 나온다.
 - ③ 보통 대학교는 전공을(✓이) 다양합니다.
 - ④ 전공수업을(✓이) 너무 많고 타과 수업시간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⑤ 이렇게 토론하는 습관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 ⑥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의를(✓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⑦ 학생과 교수가 의사소통을(✓이) 필요가 없다.
 - ⑧ 이런 방식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을(✓이) 없는 것 같다.
 - ⑨ 친구를 사귀고 애인을(✓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⑩ 술 마시면서 흥분이 되고 말을(✓이) 많아져서 관계를(✓가) 친해지고 친구가 될 수 있다.
 - ⑪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이) 들었다.
 - ⑫ 효리씨의 댄스 동작을(✓이) 변화하듯이 이 핸드폰 회사의 핸드폰도

수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 13 한국에 온 후에 가장 큰 변화는 한국말을(✓이) 들었다(다는 것이다).
- 14 한국에 오기 전에 친구들한테서 한국의 화장품(✓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 15 취미를(✓가) 무엇이라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도대체 제 취미를(✓가) 무엇인지 많이 고민을 했다.
- 16 혼자서 외로운 느낌을(✓이) 들 때는 한국노래를(✓가) 있다면 기분을(✓이) 좋아질 수도 있다.
- 17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게) 나의 취미를(✓가) 되었다.
- 18 취미 덕분에 통역관이 되고 싶은 꿈을(✓이) 생겼다.
- 19 호기심을(✓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어떤 나라에 왔는지 더 궁금할 거다.
- 20 항상 그를 생각이 나면 한국어를(✓가)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힘이 났다.
- 21 인터넷에서 큰 뉴스를(✓가) 나왔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주격조사를 목적격조사로 대체한 문장의 서술어 사이에는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다. 위 문장의 서술어는 모두 한자리의 의미 논항을 갖는 서술어이며 그 논항의 의미역이 비동작주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위 문장 서술어의 의미논항이 차지하는 통사적 지위를 목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보편문법적 인식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Perlmutter(1978)와 Burzio(1986)는 한자리 서술어가 어떠한 의미역을 갖는지에 따라 자동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동작주역만을 가진 한자리 서술어의 심층적 통사 체계는 아래의 (2)의 ①과 같고, 비동작주역을 가진 한자리 서술어의 심층적 통사 체계는 (2)의 ②와 같다고 분석하였다.

- | | |
|------------------------------------|-----------|
| (2) ① 비능격 동사 (Unergative verb) | NP vp[V] |
| ② 비대격 동사(능격 동사, Unaccusative verb) | vp[V NP] |

즉 한자리 서술어의 동작주역은 심층에서부터 주어 위치에서 생성되어 표면구조에서 주어로 표현되지만 한자리 서술어의 피동작주역은 심층에서

는 목적어 위치에서 생성되지만 표면구조에서 주어위치로 이동되어 주격 표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한자리 서술어의 피동작주역 논항에 목적격표지를 실현시키는 것은 심층에서 생성된 피동작주역이 주어의 빈 위치로 이동되는 원리를 아직 발달시키지 못한 중간 단계에서 생산한 오류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는 목적격조사를 주격조사로 대체하는 오류의 예를 살펴보자.

(3) 목적격조사를 주격조사로 대체한 오류의 예 (I)

- ① 조정 예술이라는 미감이(✓을) 느낄 수가 있다.
- ② 건물 디자인이 아닌 다른 것이(✓을) 의미한다고 느껴진다.
- ③ 이 광고 중에 효리씨가 댄스경기에서 진 모습이(✓을) 볼 수 있다.
- ④ 두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가(✓를) 엿볼 수 있다.
- ⑤ 음식을 만드는 것은(✓을) 배우기 시작하고 좋아해졌다.
- ⑥ 그래서 내 중국 요리 솜씨가(✓를) 자랑할 수 있다.

위의 예는 목적격조사가 쓰여야 할 위치에 주격조사가 사용된 오류를 보여주는 것인데, 서술어가 복합 형태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결합된 동사들의 타동성이 일치하지 않는데, 선행동사는 목적격을 부여하는 서술어이지만 후행하는 동사들은 형용사나 피동사로서 목적격을 부여하지 못하는 서술어이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한국어에서 타동성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어가 복합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주격이나 목적격이 모두 허용되는 예를 통해 격 부여 원리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게 된다.

- (4) ① 나는 오늘 [[슬픈 영화를 보고] 싶다].
- ② 나는 오늘 [슬픈 영화가 [보고 싶다]].

즉 (4)에서 ①의 경우에는 복합서술어의 타동사가 서술 보어 명사구에 목적격을 부여한 후에 후행하는 자동사와 결합되었을 때의 격 표지이고, (4)에서 ②의 경우에는 복합서술어의 타동사가 후행하는 자동사와 먼저 결합되어 상태 서술어가 된 후에 보어 명사구에 주격을 허용한 예이다.

그러나 위의 오류 예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복합적 형태는 같은 절 안의 동사구 속에서 이루어진 통합이 아니라 절 단위의 통사적 통합에 의한 복합 형태로서 문법격을 부여할 수 있는 서술어가 선행 서술어에 한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오류는 복합서술어가 서술구 내의 통합인지 절 단위의 통합인지를 구분하는 원리를 습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생산된 오류라고 해석된다.

이번에는 다음의 오류를 살펴보자.

(5) 목적격조사를 주격조사로 대체한 오류의 예 (II)

- 1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을) “오빠”, “언니”로 부릅니다.
- 2 중국이 영어로 china인데 이 i의 점이(✓을) 대만으로 그린다.

위의 오류는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주술 관계가 있는 경우에 목적 보어가 목적어에 주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한 경우이다.

한국어에서도 다음의 문장에서와 같이 상위 서술어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구가 서술 부사구와 함께 소절을 형성하여 주어로 표지되는 문장 구조가 나타난다.

- (6) ① 영희는 절수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② 영희는 절수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절 구성을 허용하는 상위 서술어는 ‘생각하다, 판단하다, 믿다’ 등의 인지적 판단을 드러내는 의미 제약을 갖는 경우이다. 따라서 (5)에 나타난 오류의 예는 소절을 허용하는 상위서술어의 의미제약을 습득하기

진 단계에서 의미적인 주-술 관계를 표현하려는 언어체계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6. 시사점 및 남은 문제

중간언어 이론에서는 학습자의 오류는 학습자가 목표어의 문법체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조사 사용 능력은 격 개념에 관한 보편문법적인 체계를 파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사 누락의 오류는 격 표지 원리를 적용하는데 요구되는 자발성이 완전하게 발달되기 중간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격 표지 적용의 자발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격조사를 목적격조사로 대체시키는 오류는 능격 동사의 의미 논항이 심층적 통사위치와 표면적 통사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원리가 한국어에 적용되는 것을 파악하기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격조사의 용법을 교수하는 데 있어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뿐 아니라 자동사 중에도 능격동사와 비능격동사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목적격조사를 주격조사로 대체시키는 오류는 복합서술 형태가 서술구 단위의 통합인지 절 단위의 통합인지에 따라 상위 동사의 격 지배 안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지 못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다. 따라서 복합서술 형태의 구성 원리를 구별하는 문법적 내용을 담아내는 교육이 요구된다.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 중에서 모어의 보편 문법체계를 스스로 파악하는 언어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오류를 수정시키며 완벽한 발달 단계로 들어서듯이 제2언어 학습자들도 목표어에 대한 보편 문법능력을 통해 중간 단계에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제2언어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체계를 습득하는데 작용시키는 언어능력은 모어 습득에 작용시켰던 언어 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근본적 상이설(Fundamentally Different Hypothesis, FDH)은 모어 습득과 제2언어 습득 과정에 사용되는 언어 능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모어의 습득은 아동마다 큰 차이 없이 발달되지만, 제2언어의 습득은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제2언어 습득과정에서는 목표어에 대한 일정한 숙달 단계에서 습득 발달 단계를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어의 습득은 보편문법적 원리에 따라 발달되지만, 제2언어의 습득은 학습자의 모어에서 찾아지는 예에 한해서만 보편문법적 원리에 따라 발달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제2언어의 발달 단계는 원리 지배적인 언어학적 기제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유추나 전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추상적 인지 기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ley-Vroman 1989, 1990, 1996)

한편 독립 활용설(Full Access Hypothesis)에서는 제2언어 습득도 모국어 습득과 마찬가지로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보편적 문법 능력이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White(1996)는 영어를 사용하는 불어 학습자들이 초급단계에서부터 영어에는 없는 불어의 침사 사용에서 보이는 유창성과 체계성에 대해 제2언어습득에서도 학습자들이 보편문법 능력을 독자적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2언어 습득에 모어의 문법적 영향이 전무한 것으로 보는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실험결과를 얻지 못해 학문적 설득력이 그리 높지 않다.

위의 두 가설이 절충된 입장으로 제2언어 초기 단계는 모어의 언어 체계가 전적으로 개입되는 완전전이(Full transfer)가 일어나지만 나중 단계에서는 모어와는 독자적으로 제2언어에서 보편문법의 원리를 습득하는 독립 활용(Full Access)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제2언어 학습자들이 모어의 간섭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계를 극복하고 서서히 목표언어의 문법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

리고 제각기 다른 언어 배경을 갖는 언어 학습자들이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비슷한 발달 단계를 거치고 유사한 오류를 보인다는 사실도 학습자들이 모어 간섭을 벗어나 목표어의 문법체계를 구성하면서 보여주는 공통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조사 사용에서 보여준 오류가 모어와 갖는 상관성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조사 오류 자체에 반영된 보편문법적 특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보편문법적 특질이 학습자가 모어 습득에서 얻은 보편문법적 인지와 상호교차할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가 향후 학습자가 모어 습득에서 활용한 보편문법이 한국어 습득 과정에 나타난 보편문법과 어떠한 부분이 일치하고 어떠한 부분이 분화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에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 핵심어: 중간언어, 화석화, 격 개념, 보편적 언어능력,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원리 적용의 자발성, 능격 동사, 복합서술어 구문

<참고 문헌>

- 김상수, 송향근(2006) 「한국어교육의 오류 분석 연구 동향」,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1-31.
- 김유미(2000), 『학습자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김정은(2004) 「한국어교육에서의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 『한국어교육』 14-1,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29-50.
- 나은영(200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27-45.
- 전은주(1994) 「한국어 학습시 나타나는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 『한국말 교

- 육, 5,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249-259.
- Baker, Mark C.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ey-Vroman, R. 1989. "What is The Logical Problem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S. Gass and J. Schachter (eds.) *Linguistic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1-68.
- Burzio, L. (1986) *Italian Syntax: A Government Binding Approach*. Dordrecht: Reidel.
- Chomsky, N. (1965) *Language and Mind*, MIT Press.
- Greenberg, J.(1963)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Universals of Grammar*, ed. Joseph H. Greenberg, 2nd edition, MIT Press, 73-113.
- Perlmutter, D. M. (1978) "Impersonal Passive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In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BLS, 157-189.
-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3), 209-231.
- White, L. 1996: "Clitics in L2 French. In Clahsen", H.(ed.) *Generative perspectives on language acquisition: empirical findings, theoretical considerations, crosslinguistic comparisons*. John Benjamins, 335-369.
- Whitman, R & Jackson, K (2006) "Unpredictability of Contrastive Analysis", *Language Learning* 22, 29-41.

<Abstract>

Interlanguages of Chi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nd Universal Grammar

Lee Sook

This paper seeks to analyz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language theory the transitional constructions that Chinese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acquire through the use of nominative and accusative case markers and suggests the pedagogical solution to prevent fossilization of interlanguage.

The data presented in this paper shows that Chinese learners acquire the case marking system in Korean by means of universal grammar that encompasses case concept. However, the omission of case marking is a phenomenon that occurs due to the under-development of spontaneousness that is required in applying the case marking principle.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teaching material include a solution that encourages learners to apply the principle of case-marking spontaneously.

Moreover, this paper finds that the errors of replacing nominative case with accusative case is due to a transitional construction which is acquired when the learners have not yet recognized that some intransitives (i.e. ergative verbs) have only one argument that generates at the object position in the underlying structure but realizes at the subject position in the surface structure. Thus, it is important for the teaching material to encompass not only the distinction between transitives and intransitives, but also that between ergative

intransitives and unergative transitives.

Last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errors that replaces accusatives with nominative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student has not yet learned to distinguish whether the complex verbal phrases are constructed by incorporation of verbal heads or by clausal incorporation. Thus, in order to avoid fossilization of transitional constructions of case marking in Korean, it is important to include the grammar education that accounts for the constructional difference of the complex verbal phrases.

- Key words: inter-language, fossilization, case concept, universal grammar, nominative case, accusative case, spontaneousness, ergative verbs, complex-verbal construction.

* 이 논문은 2010년 7월 15일 투고되었고, 8월 1일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